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21.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장 태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양 동 교 정 혜 은	전 화	044-202-3730 044-202-37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생활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사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 감염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설별 이용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1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울시는 총 6명의 확진자(△간호사 4명 △지역사회 전파 2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 아울러 병원 내 확진자가 5월 9일 접촉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20일부터는 접촉자 조사 시점을 5월 7일로 앞당기는 등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을 고려하여 격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관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까지 발생하였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고3 학생 등교가 5월 20일 시행되었으나, 등교 첫 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66개교 고3 학생들은 5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 등교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체육시설 등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5월 22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 당초 5월 21일로 예정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다운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인천 내 군·구, 교육청은 합동점검반(113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시설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3,370개소 중 773개소 점검, 1,322개소 휴원) 중이며,
  -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이크 커버 구비, 세부 시설물(의자손잡이, 키보드, 전원버튼 등)의 방역소독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경기도에서는 관내 병원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5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거쳐간 안양과 군포의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방문한 도민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브리핑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 독려했으며,

- 5월 21일부터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안양/군포시 관계자가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밀집도를 방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분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지역 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강화에 적극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 2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1회), TV 자막방송(4회), SNS 홍보(1,054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975개소 △노래방 946개소 등 총 31,48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1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1개소 △학원·독서실 22개소 △이·미용업 10개소 △민원창구 9개소 등 12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교주변 고위험 집단 감염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고 앉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였다.
  - 한편, 세종시에서는 학원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발열 미체크 △격리공간 미확보를 확인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PC방 내의 △마스크 미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미준수 △발열체크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1개반, 1,37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62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5,63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302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5.20)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하여 30개소는 고발하였으며,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8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7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9일 18시 기준 대비 328명이 감소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5.20일 입소 166명, 퇴소 134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75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 또한, 어제(5월 20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산책과 은행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고발과 안심밴드 착용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3명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중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시설격리해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5월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5월 21일부터는 전환 인정범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시설격리 대상자가 국내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추가하여,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 3촌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의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징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 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적시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